

주제회의

- 노인

## 평생의 기억 - 국가폭력의 흔적이 남은 삶

데이빗 돌린저 [미국] 광주 5·18 민주화운동 목격자

나는 지금 이 나이에 이 자리에서 국가폭력이 초래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후유증과 같은 주제로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

나의 사연은 조금 특별하다. 미국의 하위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나는 운 좋게도 퀘이커(Quaker)교계 사립학교에서 유년기를 보낼 수 있었고, 그곳에서 나 혹은 나의 가족과 상당히 다른 계층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교분을 쌓으며,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곳에서 약간의 가르침을 얻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역시 퀘이커 교도로서의 신앙이었다. 나는 그저 그런 학창시절을 보냈고 기대에 맞게 대학에 들어갔지만 별다른 구심점을 찾지 못한 채 졸업을 맞이했다. 그러던 중, 미국 시민으로서의 특권이 쓸모가 있을 것이란 생각으로, 나는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싶다는 포부를 안고 평화봉사단(Peace Corps)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결핵퇴치사업 담당자로서 한국에 배치되고, 그것이 내 인생 여정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또한, 정작 그 경험에서 영향을 받은 것은 나 자신이었으며, 내 삶의 행보가 그렇게도 고통스러울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1979년 4월, 나는 이상주의나 모험심을 하나 혹은 둘 다 가진 30여명의 미국인 청년들과 함께 한국에 도착했다. 현지적응을 위한 훈련은 한국이름을 부여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어떤 단원은 받은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지만 그것을 약간 고치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단원의 한국이름은 그 발음이 본명의 발음과 비슷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어떻게 “임대운(林大雲)”이란 이름을 받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임”은 성이고 “대운”은 이름이었다. 한자로는 수풀 “림,” 큰 “대” 그리고 구름 “운”이다. 한국에 머물렀던 3년 동안에 나는 그 이름을 계속 사용하였고 사람들도 나를 그 이름으로 불러주었다. 그 시절 친구들 중에서 몇몇은 아직도 나를 “임대운”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나는 그렇게 불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봉사단원들은 한국어와 기본적인 한국문화를 배우고 결핵퇴치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시작하였다. 나는 내가 다른 단원들과 잘 어울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국에서 지내는 것을 편안하게 느꼈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나는 말하기에 서툴렀지만 듣고 이해하는 것에는 능숙했다. 그 모습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나는 말을 꺼내기보다는 주로 남의 말을 듣는 편이고 그 과정에서 숨은 뜻을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석 달이 지난 무렵, 단원들은 각자의 보건소로 길을 떠났다. 나는 전라남도 도청소재지인 광주에서 버스로 약 1시간 가량 떨어진 전라남도 영암군의 보건소로 배치를 받았다. 영암에서의 생활은 즐거웠다. 월출산 기슭에 살았는데 주말이 되면 주변을 거닐거나 등산을 하기도 했다. 버스를 타고 도내의 여러 사찰과 시/군을 둘러보기도 했다. 또한, 평화봉사단 단원들 그리고

대학생 포레의 한국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소식을 전해듣기 위해 이따금 광주에서 주말을 보내기도 했다.

내가 한국 땅을 처음 밟았던 당시, 한국은 박정희와 유신헌법의 철권통치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봄이 되면 으레 대학생들이 시위를 벌였고 정부는 휴교령을 내렸다. 나는 한국사회의 근저에 놓인 문제점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지만 한국의 국내정치, 그리고 야당과 학생들이 주장하는 바를 잘 알고 있었고 종종 그에 관한 대화도 나눌 수 있었다. 1980 년 이전만 하더라도 시위대는 주로 젊은 학생이었다. 신홍 중산층과 이른바 “넥타이 부대”는 거리로 쏟아지는 대학생 시위대와 섞이지 않으려고 가던 길을 재촉하곤 했다.

적절한 분위기가 조성되면 택시운전사와 같은 블루칼라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기꺼이 토로하였다. 다행히도 사람들은 나와 함께 혹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그러한 대화를 나누는 것에 대하여 거리낌을 갖지 않았다.

1979 년 10 월 26 일, 대부분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를 암살한 것이다. 10.26 은 큰 충격이었지만 우리가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것, 민주주의 정부로의 변화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기도 했다. 심지어 전두환이 군부를 장악한 12.12 군사반란 이후에도 여전히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남아 있었다. 1980 년 봄에도 학생들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갔다. 나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국을 예의주시하였고 다가올 변화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

5 월 16 일, 나는 퇴근 후 다음날 만나질 근무를 준비하는 대신에 토요일에 있을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하룻밤을 보낼 요량으로 광주로 길을 재촉했다. 광주로 향하는 버스에서 나는 한 친구를 만들었고 우리는 각자의 일과 서로 아는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다.

광주에 도착했지만 저녁을 먹기에는 아직 이른 시각이었기 때문에 친구는 오빠가 사는 곳에 가방을 두고 오려고 했고 그렇게 나는 전남대학생이 살고 있는 자취방까지 동행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녀의 오빠와 그의 세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를 통하여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게 되었다. 전국의 각지의 대학캠퍼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알게 되었는데, 금요일 밤에 마지막 집회가 있을 것이며

그것은 광주역에서부터 전남도청까지의 촛불행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 집회를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강의실로 돌아갈 계획이었던 것이다.

나는 촛불행진을 구경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친구의 결혼식장까지 가는 버스를 타려면 다음날 일찍 일어나야 했기 때문에 전남도청으로 향하는 시위대에 잠시 합류했다가 숙소로 들어갔다.

결혼식은 아름다웠고 그곳에서 나는 평화봉사단원 친구들과 만나 즐거운 한 때를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일요일 아침이 되자 계엄령이 선포되었으며 시위를 주도한 대학생간부와 김대중을 비롯한 재야인사들이 체포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전라남도의 상황도 여의치 않았다; 심지어 결혼식이 있었던 곳에서도 긴장과 불안감이 눈에 띄었다. 아침, 점심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사람들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해 논하느라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최선의 상황을 기대했지만 민주화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시위를 종료하고 캠퍼스로 돌아갈 것을 결의한 마당에 계엄이 선포된 것은 좋지 않은 징후였다.

늦은 오후, 나는 최루탄 냄새와 공포가 엄습한 광주로 돌아갔다. 영암행 버스는 이미 운행을 중단했기 때문에 나는 광주에서 하룻밤을 더 묵어야만 했다. 광주터미널에 도착한 후, 나는 시내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 길에서 나는 평범한 계엄군이 아닌 진짜 전투부대를 목격했고 시민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가능한 신속하게 거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었다. 나중에 나는 그 군인들이 검은 베레모를 쓴 공수부대였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일개 평화봉사단 단원일 뿐이었지만 검은 베레모가 무엇을 뜻하는지, 검은 베레를 쓴 이들이 베트남전에서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었다. 내 신변이 위태롭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불안한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 와중에 다행히도 나는 광주에 살고 있던 평화봉사단 동료 팀 윈버그(Tim Warnberg)를 만났다. 팀은 시내에서 시위의 시작과 그 이후에 발생한 폭력적인 진압현장을 목격했었다. 팀은 나와 함께 시내 곳곳의 현장을 돌아다니며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을 설명해 주었다; 공수부대는 젊은이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모욕을 주었으며, 길거리 상점에 난입하여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닥치는 대로 끌어냈다. 공수부대는 광주의 모든 젊은이들을 범죄자로 취급하였던 것이다. 길을 걷는 와중에 우리는 시민들이 몸을 피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으로 보이는 신발을 볼 수 있었다.

팀이 목격하고 경험한 것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길을 멈추었다. 그 때, 한복을 차려 입은 한 어르신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셨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날 오후 광주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지 궁금해 하셨고 이에 팀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 어르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계엄군의 폭력을 목도하였고 아무리 정부라고 해도 국민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할 권리는 없으며 광주시민들은 폭력과 탄압에 맞서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어르신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이해했음을 확인하신 후, 자리를 뜨셨다. 나에게는 그 순간이 바로 5.18의 시작이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보건소로 출근하고 결핵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일단 광주를 떠나 영암으로 돌아갔다. 월요일과 화요일에 걸쳐 나는 광주의 상황을 몰래 전해 들었지만 그 어느 것도 좋은 소식이 아니었다. 화요일 밤, 광주와 외부를 잇는 전화가 차단되었다. 이런 저런 소식을 전해듣게 된 후, 나는 결국 광주로 가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수요일 아침, 나는 버스에 올랐고 영암과 광주의 중간쯤 위치한 나주까지 갈 수 있었다. 버스가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나는 택시를 수소문했지만 택시기사는 광주까지 무려 100 달러 상당의 금액을 요구했다. 광주로 가는 길을 알고 있었던 나는 그냥 걸어가기로 마음먹었지만 막상 길을 나서자 약간의 불안감이 엄습했다.

얼마쯤 길을 걷다가 나는 처음으로 큰 경험을 하게 되었다. 나는 트럭과 버스에 탄 일단의 시민들을 보았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들은 광주에서 벌어진 일을 외부로 알리기 위하여 인접한 시/군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또한, 나는 광주로 향하는 길에서 처음으로 중앙정보부 요원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내가 사진을 찍고 있을 때, 택시 한 대가 급하게 U-턴을 해서 나에게로 향했고 거기에는 운전기사와 함께 중앙정보부 요원이 타고 있었다. 택시는 나와 거의 1m 거리까지 다가왔다. 차량이 멈추자마자, 뒷좌석에 탄 중앙정보부 요원은 (한국말로) 나에게 카메라를 내 놓으라며 고함을 쳤다. 그러나, 나는 중앙정보부 요원에게 카메라를 내주지 않을 것이며 그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확인해서 추후 경찰에 신고할 테니 당장 주민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침착하게 한국말로 대답했다. 중앙정보부 요원은 또 다시 15~20 초가량 욕설을 내뱉으면서 카메라를 달라고 했다. 나는 거듭 정중하게 그의 요청을 거부했고 요원의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그 때, 갑자기 운전기사가 대화에 끼어들더니 완벽한 미국식 발음의 유창한 영어로 뒷좌석에 앉은 남자는 중앙정보부 요원이며 그가 원하는 것은 카메라가 아니라 단지 카메라 안에 든 필름이라고 말했다. 나 또한 영어로 대답하면서 나는 필름을 내주지 않을 것이며 법을 위반하지도 않았고 만약 그 남자가 중앙정보부 요원이라면 나중에 그 사람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다시 나는 한국말로 그들에게 카메라도 그 속에 든 필름도 내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 순간, 뒷좌석의 남자는 곤봉으로 내 가슴팍을 찔렀다. 나는 심신을 굳게 다잡고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고 천천히 고개를 꺾어 아래를 바라보았다. 내 가슴팍에 닿을만한 곳에 곤봉이 보였다. 고개를 돌리자 뒷좌석에 앉은 남자가 차창 밖으로 팔을 쭉 뻗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를 응시하며, 카메라도 필름도 내줄 수 없으며 당장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다시 한번 말했다. 사람들이 몰려들자 황급히 시동을 거는 운전기사에게 그는 너무 긴 시간을 낭비했다고 고함을 쳤다. 그 때, 처음부터 그 광경을 목격했던 한 할머니가 내게 다가와 제정신이나고 물으시며 그들은 중앙정보부 요원이니까 달라는 것을 주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으며 또한 그들이 나에게 카메라를 요구할 권리도 없다고 대답했다.

만약 누군가 내게 그날 그곳에서 부상을 당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당연히 “그랬을 것이다”라고 대답할 수 밖에 없다. 나는 아직도 어떻게 내가 그 정도의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다. 다만, 나는 중앙정보부 요원이 원하는 대로 순순히 따를 수는 없었다는 것만을 알았을 뿐이다.

나는 다시 광주로 발길을 재촉했다.

광주로 들어서는 경계에 다다랐을 무렵, 나는 지난 금요일 광주행 버스에서 만났던 바로 그 친구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광주를 탈출해서 그녀의 직장이 있는 나주로 향하던 길이었다. 그녀는 광주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사람들이 총에 맞았고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광주로 들어가지 말라고 나를 설득했다. 그러나, 내가 뜻을 굽힐 생각이 없음을 알아채고 이내 그녀는 나와 함께 광주로 되돌아갈 것을 결심했다.

우리가 광주 변두리의 어느 작은 언덕에 올랐을 때, 나는 헬기소리를 들었다. 헬기는 우리의 등 뒤인 남서쪽에서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자 황급히 인근의 상점으로 몸을 숨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고개를 들어 헬기를 바라보았다; 헬기는 금남로가 내려다보이는 도청건물로 향하는 듯 보였다. 그리고, 친구는 나를 끌고 가까운 상점으로 들어갔다. 그 때, 나는 헬기의 측면 도어에 기댄 채 지상으로 총격을 가하기 시작하는 전투복을 입은 남자를 보았다. 상점 안으로 들어가자, 사람들은 나에게 몸을 내밀지 말라고 야단을 쳤다. 그날 광주상공에 헬기가 나타나고 그 헬기에서 누군가 거리의 사람들에게 총격을 가한 것이 처음은 아니었다. 다음날, 나는 광주기독병원에서 기총소사뿐만 아니라 살상용 텀블링 탄환(tumbler bullet)에 희생된 시민을 보게 되었다.

금남로를 안전하게 통과한 후, 나는 친구와 헤어졌다. 나는 평화봉사단 단원과 혹시 있을지 모를 한국인 친구들을 찾아 나섰고, 그녀는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오빠의 집으로 향했다. 그렇게 나는 518 의 일부분이 되었다. 나는 시내의 병원을 찾아 다니고, 외신기자들을 위해 통역을 했으며, 도청 건물에 있던 시민대표와 만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하루는 계엄군이 영어를 사용하여 광주에 대한 공격명령을 내릴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밤새 도청건물에서 계엄군의 무전을 모니터링 하기도 했다.

계엄군이 다시 광주에 진입한 5 월 27 일 이후, 평화봉사단은 광주에 남아있던 단원들을 데려가기 위하여 승합차를 보냈다. 서울에 도착한 당일에 나는 내가 광주에서 했던 일 때문에 평화봉사단으로부터 탈퇴를 강요 받았다. 같은 날, 나는 미국정부가 한국에서 나의 안전을 더 이상 보장해 줄 수 없고, 주한 미국대사관이 파악한 바로는 광주에서의 활동 때문에 내 신변이 위협받고 있으며, 따라서 즉시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나는 대학원 입학에 위해 어쩔 수 없이 출국해야만 했던 때까지 1 년 2 개월을 더 한국에서 보냈다. 그 기간 동안 나는 국내 소식을 외국에 알리고 외국 소식을 국내에 알리기 위하여 자유주의 선교사 그리고 민주화 인사의 가족들과 함께 일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야당 지도자들, 그들의 배우자와 어머니들이 보여준 저력을 보았다.

그 해 5 월, 많은 친구들 그리고 지인들을 잃었다. 내가 알기로는 그 중 몇몇 분들은 스스로 유명을 달리하셨다. 그리고 중앙정보부의 감시 때문에 연락을 끊을 수 밖에 없었다; 나는 그들을 다시는 만날 수 없었고 시간상 그들의 연락처를 수소문 할 겨를도 없었다. 나는 나와 접촉한 사람이 심문을 받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나는 아직도 5 월 16 일와 21 일에 만났던 내 친구와 그녀 오빠의 생사를 알지 못하고 있다. 몇 주가 지난 후, 나는 전남도청에서 함께 했고 길거리에서 시위대를 이끌던 학생운동 간부 중 한 명을 마주치게 되었다;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았지만 두 사람 모두 미행당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아는 척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도청건물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30 년이 흐른 뒤에서야 다시 만나는 행운도 있었다. 그러나, 5.18 에 대해서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이 너무나도 많다. 프로펠러의 소리가 그날의 죽음과 고통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헬기소리를 싫어한다. 아직도 얼굴이 멍개져 사라지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 처참한 모습을 한 죽은 자의 시신이 떠오른다.

국가폭력은 비단 육체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육체적 피해만큼이나 정신적 피해도 있다. 내가 겪는 정신적 피해는 미국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 미국정부는 나에게 평화봉사단을 탈퇴하도록 강요하였고, 심지어 나와 내 동료단원들이 목도했던 것을 발설하지 말라고 위협했다. 만약 내가

무엇을 발설하거나 한국을 떠나지 않는다면 미국정부가 더 이상 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한국의 중앙정보부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이미 미국정부관계자에게 언급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국가폭력이 초래한 정신적 고통은 극에 달했다. 비록 '사고'를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지만,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위협은 여전했다. 그같은 정신적 폭력은 내가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출국하던 1981년 7월까지 계속되었다. 나는 5.18 이전에 알던 사람이 아니고서는 미국인도 한국인도 믿지 않았다; 심지어 같은 단원 중에서도 믿을 수 없는 자가 있었다. 김포공항을 통하여 한국을 떠나던 날, 출국심사대의 한국군 장교는 나에게 향후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나는 미국에서 대학원을 마친 후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나의 입국이 불허될 것이니 그런 일은 꿈도 꾸지 말라고 대꾸했다. 김포공항에서 부친 집은 내가 탑승했던 비행기에 실리지 않았고, 미국에 도착한 지 2~3일이 지나서야 집을 찾을 수 있었지만 가방의 지퍼는 잘려나가 있었고(물론 짐을 붙일 때는 잠겨있었다) 그 안에 들어있던 모든 것들은 검사를 받은 상태였다.

5.18은 내 인생에 커다란 고통을 남겼고, 나는 아직도 그 고통을 감당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렇지만, 그 고통 때문에 나는 내 눈 앞을 지나간 것, 내가 직접 목격한 것, 그리고 타인을 위한 희생을 잊지 않게 되었다. 나는 그것을 삶의 본보기로 삼았고 그에 맞게 살아왔으며 또한 그 마음가짐으로 내 아들을 길렀다. 나는 비록 보람도 좌절도 느껴왔지만 질병진단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일해왔다.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나는 5.18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만났던 사람들과 내가 잃어버린 사람들을 단 한번도 잊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매일같이 떠올린다. 그들은 내가 진단분야에서 모든 역량을 쏟아 붓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고, 나는 이 힘을 통해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광주시민들이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새로운 고향,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도청건물에서 들었던 것처럼 나를 광주시민으로 인정해 준 것이다. 나는 이를 5.18과 관련하여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나는 항상 나 자신, 특히 5.18과 관련된 내 모습을 의심해 왔다. 나는 항상 내가 무엇인가를 더 할 수 있었고 또한 그랬어야만 했다고 느껴왔다. 27일 아침, 계엄군이 공격을 재개하자, 사람들을 거리로 불러내고 도청건물에 남아있는 동지들을 잊지 말아달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내가 도청 건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류하였다. 나는 만약 외국인이 도청건물 앞에 앉아 시위를 벌인다면 특별한 메시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것을 평생토록 후회하고 있다.